



**양보없는 레이스**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 리스트 모태범(오른쪽)과 스피드스케이팅 대표팀 만형 이규혁이 29일 서울 노원구 공릉동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45회 전국남녀 종목별 선수권대회 겸 국가대표선발전 첫날 500m에서 힘차게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 AG 야구대표팀 주전경쟁 가열

중견수·투타자 자리 놓고 선의의 경쟁... "컨디션 바가며 활용"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사이에 주전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대표팀 타선에서 주전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자리는 중견수와 투타자다. 대표팀의 외야수는 총 5명. 이 중 김현수(두산)가 좌익수를 차지하고 추신수(클리블랜드)가 불발이 우익수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남은 이종욱(두산), 이용규(KIA), 김강민(SK) 등 3명이 중견수 한 자리를 놓고 다투야 하는 상황이다. 3명 가운데 국제대회 경력이나 국내 프로야구에서의 성적 등을 고려할 때 이종욱과 이용규가 한 걸음 앞섰다. 포스트시즌에서 절정의 타격 감각을 과시한 이종욱과 이달 중순부터 팀 마무리 헌전에 참가한 이용규는 현재 대표팀에서 가장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다. 조범현 대표팀 감독도 "두 선수

의 페이스가 워낙 좋다. 한 명을 주전으로 뽑지 않고 컨디션을 바가며 써 두루 활용하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이종욱과 이용규는 2루수 정근우와 투타자 자리를 놓고 다시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테이블 세터인 1, 2번에 포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타격 기계' 김현수가 2번으로 전진 배치될 가능성도 있다. 김현수는 상대의 선발 투수의 스타일을 감안해 클린업트리오인 추신수, 김태균, 이대호의 앞뒤인 2번이나 6번에 기용된다. 조 감독은 "김현수의 타순 변화를 포함해 3종류 정도의 타순을 마련해 줬다"라고 말했다. 하위 타순에는 포수 박경완, 3루수 최정, 유격수 손시현이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포수 김민호, 3루수 조동찬, 유격수 강정호는 백업요원으로 주전을 노리며 뒤를 받치게 된다. 조동찬(삼성)과 강정호(넥센)는 내야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게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28일 예도 2루수, 3루수, 유격수 포지션을 돌아가며 훈련했다. 또 김현수도 외야수와 1루수 수비 훈련을 함께하고 있다. 김태균과 이대호가 1루수와 지명타자를 나눠 가질 것으로 보이지만 상황에 따라 김현수가 1루수로 투입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투수의 경우 에이스 류현진(한화)만 내달 13일 대만과 첫 경기 및 결승전 선발로 유력할 뿐 나머지 경기의 선발은 확실하게 결정되지 않았다. 4강의 경우 상대가 중국이나 일본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야구 한국팀 경기일정**

한국시간 기준	
A조	B조
11월13일(토) 오후 7시	대한민국 대 대만
11월14일(일) 오후 5시	대한민국 대 홍콩
11월16일(화) 오후 1시	대한민국 대 파키스탄
4강 진출시	
11월18일(목) 오후 1시	B조 1위 : A조 2위
11월19일(금) 오후 1시	A조 1위 : B조 2위
11월19일(금) 오후 7시	결승전

연합뉴스

이냐에 따라 투입될 선발 투수가 달라질 수 있다. 왼손 양현종(KIA), 봉준근(LG), 오른손 윤석민(KIA)이 4강 선발은 물론 결승전과 대만과 첫 경기 등에서 불펜진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

## 김송희 고국서 첫 우승컵 기대

한국 여자배구 첫 승

LPGA 1R 공동선두

김송희(22·하이트)가 29일 인천 스카이72 골프장 오션코스(파72·6364m)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에 보기 1개를 곁들여 4언더파 68타를 치며 한국계 비키리스트(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로 나섰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 1라운드를 시작한 김송희는 전반에만 버디 3개를 잡아내며 3타를 줄였고 11번홀과 15번홀(이상 파4)에서 1타씩을 줄여 단독 선두에 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16번홀(파4)에서 티샷을 왼쪽 러프에 날려 보낸 뒤 8번 아이언으로 친 두번째 샷이 길어 그린 위에

올리지 못하는 바람에 유일한 보기를 적어냈다. 최나연(23·SK텔레콤)도 3언더파 69타를 치며 공동 3위로 따라 붙어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순항했다. 6번홀까지 파행진을 이어가던 최나연은 7번홀(파5)에서 세번째 샷을 홀 1.5m에 붙여 첫번째 버디를 잡아낸 뒤 버디 4개와 보기 2개를 추가했다. 재미교포 위성미(21·나이키골프)도 장타를 뽐내며 2언더파 70타를 쳐 유소연(20·하이마트), 강지민(30), 이지영(25) 등과 함께 공동 5위에 자리했다. 2년 연속 상금왕에 도전하는 신지애(22·미래에셋)는 1오버파 73타를 치며 공동 34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한국 여자배구가 2010 세계여자배구선수권대회에서 캐나다를 꺾고 첫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다. 박삼용(인삼공사)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29일 일본 오사카 시민체육관에서 열린 D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캐나다를 3-0(25-19 25-19 25-14)으로 완파하고 산뜻하게 출발했다. 러시아, 도미니카공화국, 중국, 터키 등과 같은 조에 편성된 대표팀은 이날 승리로 승점 2점을 챙겼다. 이번 대회에서는 패해도 승점 1점을 준다. 광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대회에 출전 중인 대표팀은 30일 오후 1시30분 같은 장소에서 도미니카공화국과 2차전을 치른다. /연합뉴스

## 워즈니아키, 시즌 세계 랭킹 1위 확정

캐롤라인 워즈니아키(1위·덴마크)가 2010년 시즌 여자프로테니스(WTA) 세계 랭킹 1위를 확정했다. 워즈니아키는 29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WTA투어 챔피언십(총 상금 455만달러) 마운트 그룹 예선리에서 프란체스카 스키아보네(6

위·이탈리아)에 2-1(3-6 6-1 6-1) 역전승을 거뒀다. 지난달 11일자로 당시까지 1위였던 서리나 윌리엄스(3위·미국)를 제치고 덴마크 선수로 최초로 세계랭킹 1위에 오른 워즈니아키는 이날 승리로 이번 대회에서 2승을 거둬 이번

시즌 1위 자리를 확정지었다. 지난 25일 발표된 순위에서 2위 베라 즈보나레바(러시아)에 1천 174점 앞섰던 워즈니아키는 이번 시즌 1위 자리를 수성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승을 올려야 했다. 워즈니아키는 대회 첫 경기에서 엘레나 데멘티예바(9위·러시아)를 2-0(6-1 6-1)로 가볍게 눌렀지만 두번째 상대 사만다 스토서(호주)에 0-2(6-4 6-3)으로 밀려를 당했다. /연합뉴스

마지막 경기에서 반드시 1승을 추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워즈니아키는 스키아보네에 첫 세트를 내줬지만 리듬을 되찾고 나머지 두 세트를 침착하게 가져와 승리를 마무리했다. 올 시즌 투어 단식에서만 5번 우승하고 61승을 올린 워즈니아키는 올해 스무살로 2000년 마르티나 히нг이스 이후 가장 어린 시즌 랭킹 1위 선수가 됐다. /연합뉴스

## 생활 게시판

부음

▲장명희씨 별세 김경도·레진씨 모친상=발인 31일(일)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3분향소. 062-231-8903.

▲유희중씨 별세 진수·진호·영수·춘림씨 부친상=발인 30일(토) 무등장례식장 102호. 062-515-4488.

▲오삼동씨 별세 성훈·명훈씨 부친상=발인 30일(토) 무등장례식장 202호. 062-515-4488.

▲고군순씨 별세 박종덕·이순씨 모친상=발인 30일(토) 조선대병원 장례식장 5분향소. 062-231-8905.

**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

<p>故 高 元 准 兄(남/52세)</p> <p>子 : 고재일 / 성재                  未亡人 : 서영숙                  • 호실:101호 • 발인:10월31일 • 장지:영락공원</p>	<p>故 文 재 래 弟(여/81세)</p> <p>子/子孫 : 김충식 / 백순남, 홍근 / 문연숙                  국경 / 국경희, 특중 / 이영미                  기중 / 홍정열</p> <p>女 / 孫 : 김준식 / 김봉민, 춘란 / 박남기                  • 호실:201호 • 발인:10월30일 • 장지:보성회관 선영</p>
---	--

**孝 金 浩 장례식장** http://www.mykumho.com  
문의 (062)227-4000

**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弔**

▲김진중·강용식·이대경·정영일·박정민 씨 빕부상  
 발인 : 10월31일(일) 09시00분 장지:화순군 이양면 선영 연락처 : 250-4412

**그린장례식장** 24시 대기 / (062)250-4455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h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